



보도시점 2026. 9. 22.(화) 16:00 배포 2026. 9. 22.(화) 15:30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기술 기업 '빅밸류' 방문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행정혁신 방안 논의-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데이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데이터 기술 기업과의 소통에 나섰다.

22일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데이터기술 기업 빅밸류 본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율조직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업무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빅밸류는 사내 실험으로 구축한 자율조직 '복덕방 컴퍼니'를 소개하고,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해당 모델은 별도의 직원 없이 의사결정·고객응대·홍보·품질검수·운영 등 다섯 가지 기능을 각각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맡아 수행하는 방식이다. 빅밸류 측은 향후 기업 업무에서 사람은 방향 설정과 책임을 맡고, 단순·반복 업무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방향으로 업무 방식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연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업무 자동화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고, 공공부문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진 면담에서 빅밸류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각 기관의 정책 데이터 기반 구축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데이터처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온톨로지) 구축’ 및 ‘통계 특화형 인공지능(AI)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 데이터 정제와 인공지능 전환(AX)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빅밸류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활용 사례를 직접 살펴보면서 인공지능(AI)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민간의 인공지능 전환(AX) 경험과 데이터 관리 기술을 참고해 범정부 인공지능(AI) 활용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시된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AX) 방안 등을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체계 마련에 참고하고, 기업들이 국가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과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인공지능통계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선희 (042-481-3604)
		담당자	사무관	최유미 (042-481-3695)